

천년고찰 건봉사 불교 성지로 재탄생

고성군 175억 들여 2017년까지 설법전·극락전 등 15동 복원

조선 4대 사찰 전소 아픔 군민·불자 힘 모아 재건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금강산 건봉사가 복원사업을 통해 한국불교 성지로 거듭난다.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최근 총사업비 175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공간과 설법전, 극락전, 요사채, 사성전 등 건물 15동을 복원하고 소하천과 안내관을 설치하는 등 건봉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1990년 지표조사로 시작으로 팔상전지 등 4개 지역 사지 정비 등 복원사업에 착수해 2011년까지 팔상전과 대웅전 등 16개 건물들

복원한 바 있다.

고성군은 또 건봉사지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해 유적 복원의 타당성과 복원 관리 방안, 향후 복원에 관련한 정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강산 건봉사는 묘향산 보현사, 계룡산 감사, 두륜산 대흥사와 함께 '4대사찰'로 꼽힌다.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520년) 아도화상이 창건해 원각사로 불렸다.

경덕왕 17년(758년)에 발진화상이 중건하고 정선, 양순 스님 등과 1만일 동안 염불을 외우며 수행하는 염불만일회를 시작했다. 여기에 1829인의 신도가 참여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각 사찰의 염불만일회의

시초가 됐다. 고려 태조의 스승인 도선대사가 왕명으로 원각사를 중수하고 절 서쪽에 봉황새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하여 서봉사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358년에는 나옹 스님이 중건하고 건봉사로 개칭하면서 비로소 염불과 선·교의 수행을 갖춘 사찰이 됐다.

1465년 세조10년에는 세조가 이 절로 행차하여 자신의 원당으로 삼은 뒤 대웅전 옆에 어실각(御室閣)을 짓게 하고 조선왕실의 원당(願堂)으로 삼았다. 이후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이후 대웅전과 팔상전, 관음전 등 모두 766칸을 보유해 조선 4대 사찰의 하나로 성장했다.

부처님 진신치아사리가 모셔져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호국의 도량이기도 하다.

일제시대까지 강원 북부 강원지역을 대표하는 조계종 본산 중 하나로 신홍사·백담사·낙산사를 관할했으나 6·25로 일주문만이 남고 완전 전소돼 신홍사 말사로 편성됐다. 종전 후에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신도들의 출입마저 자유롭지 못해 폐사 위기에까지 몰렸다.

건봉사는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 8과를 비롯해 보물 1336호로 지정된 능과교와 보물 1337호인 육송정 홍교, 도문화재자료 제35호인 불이문, 사명대사 기적비, 세존양아탑비 등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1982년 지방기념물 제51호로 지정

됐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김천 직지사과 함께 간이역 직지사역을 불교 테마성지로 육성한다. 코레일은 4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 40개 간이역을 대상으로 간이역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해 직지사의 제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경북 김천에 위치한 '직지사역'은 1925년 세종신호소로 문을 연 이후 1990년 간이역으로 격하됐다.

이번 최우수작 선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직지사역에 세계철도박물관을 조성한다. 또 직지사는 가수 제인, 개운사 녹아유치원생 50여 명과 함께 '직지사역' 노래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자리 창출이 한국의 미래”

불자 김두관 경남도지사, 부산대 특강

불자 김두관 경남도 지사가 부산대 학생들에게 한국의 미래상을 전했다.

김 도지사는 부산대 초청으로 6월 13일 열린 '제2회 인문대학 명사 초청 특강'에서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란 슬로건이 있는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현재 한국의 실질 청년실업률은 22%이고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이며, 급여 또한 정규직의 50%”라면서 “지금 한국 경제의 화두는 ‘얼마나 강한 일자리를 만드는가’라고 산업정책 페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들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공평한 대학정책



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차별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공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대학의 자율화와 총장 선출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대학생의 질문에는 “대학 자율화가 대학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 유감스럽다. 대학의 균등화가 된 지금 시점에서, 과거 지방 엘리트 양성에 큰 역할을 했던 국립대학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도지사는 바른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대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동자승 OB·YB 한자리 모였다

10일 흥법사 잔디마당서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는 6월 10일 경내 잔디 마당에서 '제1회 흥법사 단기출가 동자승 동문회 체육대회'를 열고 우호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동문체육대회에는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에 참가한 1기부터 7기까지의 동자승과 가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동자승단기출가가 유년기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

문회를 결성했다”며 “1기 동자승들이 이제 중학생이 돼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7월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자승 1기 정석현(재승중1)군의 어머니 김외선(수미정) 동문회 회장은 “아들이 유치원생일 때 단기출가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기억하는 부분은 적지만, 당시 마음이 짐이 생길 속에서 묻어나고 있다”며 “동자승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불교 포교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우리가족의 즐거운 월정사 숲길 달리기

또 금상에는 김부오(강릉시 입암동) 씨의 '오대산 나들이', 은상에는 장세영(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씨의 '우리아이 키 크게 해주세요', 동상에는 박인진(충주시 칠금동)씨가 출품한 '울서보살과 소통하기'가 각각 선정됐다.

제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오대산 전국 디지털사진 공모전 대상에 김동일 씨가 출품한 '우리가족 달리기'가 6월 8일 선정됐다.

공모전에는 대상 200만원,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입선작에는 상장과 기념품이 전달된다.

노덕현 기자

설동근 동명대 총장 13일 취임식

동명대 '작지만 강한 대학' 비전 밝혀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설동근 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부산 동명대 제7대 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동명대는 6월 13일 설동근 총장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변화를 다짐했다.

설 총장은 취임사에서 “‘작지만 강한 대학’이란 비전을 가지고 내실을 다지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산학협력거점대학인 동명대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 총장은 지난달 31일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이사회에서 제7대 동명대 총장으로 선임돼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 10년간 부산시교육감을 지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법산 스님과 무명사 주지 무명스님, 문수사 주지 지원스님을 비롯한 불교 각계 대표들과 명대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부산 진여원, 호국영령 위령제

14일 현충공원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계종 진여원(회주 혜종)은 6월 14일에 화명동 현충공원에서 제14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제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

이날행사는 진여원 회주 혜종 스님과 주지 무성 스님을 비롯해 이성국 부산지방보훈청장, 제53사단 125연대 6대대 서재석 대대장, 이상률 북부경찰청장, 황재관 북구청장과 300여명의 보훈가족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됐다.

혜종 스님은 추모법문에서 “부처님 말씀 중에 ‘베를 수 있는 만큼 베풀라’는 법문이 있다. 호국영령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자신을 베푼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있는 것임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현충공원 내 호국영령추모비는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전사한 428위의 영령을 모신 곳으로 2002년 건립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대불총, 연등회 축제 평가회 개최

11일 대구 문화웨딩홀서...“홍보부족” 지적

대구불교총연합회는 6월 11일 문화웨딩홀에서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문화축제 ‘달구벌 관등놀이-연등회’ 축제 평가회를 가졌다.

대불총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예산을 지원받은 가운데 대구 불교계 전체가 힘을 모아 행사를 성공리에 치러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사 기간이 길고 홍보가 다소 부족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한편 대불총은 한국 전통등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제1회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축제를 지난달 17일부터 사흘간 두류야구장 일원에서 개최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거리 제등행진을 봉행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7월 9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7월 10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68주기 추모 다례제

재단법인 선학원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68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만해 스님께서는 일제강점기 선학원의 설립조사이시며, 우국지사로서 한평생을 민족불교 수호와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민족의 선각자이십니다. 만해 스님의 열반 68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를 봉행함으로써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계승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6(2012)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재단법인 선학원 중앙선원 3층 법당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합장

공지 사항

- ※ 참석을 희망하시는 사부대중께서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 ※ 문의 : ☎ (02) 734-9654~6

재단법인 선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02)734-9654~6
http://www.seonhakwon.or.kr